

# 세계 에이즈 전략과 한국의 대응

## 1. 서론

에이즈가 지금까지 인류사회에 끼친 영향이 무엇이며, 현재는 어떠한가, 앞으로 어떠한 추세로 전개되어 인류역사에 어떠한 족적을 남기고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인류를 파멸로 몰아가며 계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다.

에이즈의 주 감염경로가 성관계인 연고로 에이즈 감염자들을 도덕적으로 단죄, 사회로부터 차별격리를 요구하는 보수적 문화의 특성상, 단순한 질병에 대한 무서움보다도 감염자나 환자들을 무시위하고 증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인의 정서와 인식을 고려한 효과적 대응을 현실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그리하여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미루어 대다수 감염되지 않은 일반국민들에게 다각도로 도움이 되게 하여 안심시키면서, 감염자와 환자들도 남은 생을 보람있고 가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 2. 미국을 비롯한 전략 실패 국가의 경우

1981년 세계에서 최초로 에이즈 환자가 공식 보고된 미국에서는 그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가 에이즈를 단순히 「동성애자들과 마약사용자들의 특이한 괴질병」으로 경시하여 조사비 정도의 예산밖에 지출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당시 미국은 의학부문에서는 가장 발달되고 앞서가는 최신 수준이었고, 보건체제도 가장 충실하고 체계적이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미행정부의 관계기관에는 풍부한 자금을



정 경 균  
한국에이즈연맹 회장

미국에서는  
에이즈를 단순히  
“동성애자들과  
마약상용자들의  
특이한 괴질병”으로  
경시하여  
조사비 정도의  
예산밖에  
지출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처해  
문제가 되었다.

공급받고 있었으며, 연구시설 또한 풍족했으므로, 새로운 질병에 대한 의지만 있었다라면 조사, 연구하여 탁월한 예방책을 세울 능력이 있었다.

또 한편으로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막강한 언론기관이 활발하게 살아 있었다. 더구나 이 병의 감염자를 가장 많이 내고 있던 동성애 사회는 그 당시 견고한 정치조직을 갖고 있어서 그들의 생존과 건강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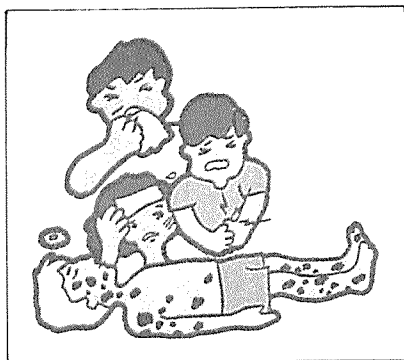
그러나 이렇게 준비된 여건 속에서 에이즈로 인해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도 당국은 「동성애자나 마약상용자 같은 소수의 문제」로 경시했다.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도 대기업을 비롯한 직장에서는 정부의 편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감염직원을 해고하거나 차별했고, 학자들은 동성애자를 괴롭히는 병 따위는 연구해도 별로 명성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국제적인 연구조사에 협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대립하는 자세마저 취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1985년 8월 10일 영화배우 록히드슨이 에이즈라고 고백하고 10월 2일 사망하자 그 때까지 소수의 문제로 밖에 생각지 않았던 에이즈가 일반대중들에게 공포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사망기사에 이어서 직장에서 쫓겨난 감염자, 동네에서 쫓겨나 전전하는 가족들, 그리고 학교에서도 등교를 거부당하는 모습들이 줄이어 나타나자 대중들은 혹시 자기가 감염되면 저렇게 처참한 절망적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 하면서 한편으로는 병 자체보다도, 병에 걸린 감염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차별을 심화시켜 감염자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자연히 지하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오늘날 에이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태국의 경우도 초기에 에이즈 환자가 나오기 시작한 1984년부터 국가의 정책 우선 순위와 관광 수익의 비중 등을 고려해서 축소 은폐하기에 바빴고, 그 심각성 또한 미처 깨닫지 못해 이렇게까지 폐해가 클 줄 몰랐던 것이다. 북부 산간지역에서 어린 나이에 도시의 매춘여성으로 팔려와 생활하다가 에이즈에 감염되면 귀향 조치시키곤 하는 것이 다반사인데, 그 산간마을에까지 에이즈가 만연해 산간지역 마을이 에이즈로 없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나자 이렇게 하다가는 국가 존립기반이 위태롭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고, 오히려 정

부에서 일부 확대 발표  
까지 하면서 사후수습  
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  
도 체계적인 대응이 어  
려운 실정에 있다.

인도에서는 정부 공  
식발표로 14,000명선의  
감염자가 있다고 하지  
만 민간기구인 인도보  
건기구(IHO)에서는



200만명 정도의 감염자가 있다고 발표하는 것을 보면 국가에서는 이미 에이즈 관리를 포기했다. 카스트제도에 의한 철저한 신분차별로 하층민의 생명경시 사상이 심하여 매춘여성들이 에이즈로 죽어가도 아무런 혜택과 관리도 전무한 실정인 것이다.

중양아프리카는 지구상에서 가장 에이즈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국민의 30% 가량이 감염되어 있고, 노동연령 인구층이 격감함으로 말미암아 국가 경제력이 약화되어 빈곤의 악순환 속에 에이즈 고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피해가 속으로 끓아 터지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태국의 경우도  
1984년부터  
국가의 정책  
우선 순위와  
관광수익의  
비중 등을  
고려해서  
AIDS 환자의 발생을  
축소·은폐하기에  
바빴다.

### 3. 영국을 비롯한 전략 성공 국가의 경우

영국은 미국이 에이즈 대책에 실패해 폭발적 감염이 일어난 것을 교훈으로 삼아 효과적으로 대처해 폭발적 감염억제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에서 처음으로 에이즈 사망자가 보고된 1982년 당시는 대처수상 재임시절이었다.

영국정부도 전통적 도덕을 유지하는 입장으로 「에이즈 문제 접근은 동성애 사회에 관계하는 것」이라는 보수적 반발을 염두에 두어 1986년 이전에는 개입하는 것에 주저했다. 그러나 「도널드 아치슨」경을 비롯한 선구자들의 노력으로 3가지 방향의 전략적 전개를 시도했다. 첫째는 감염양상을 파악해서 초기예방의 초점을 동성애 조직에게 두고, 철저한 예방행동 요청 등 역학적 축구를 한 것이다. 두번째는 일반대중에게 이성간 성관계 감염을 경고하면서 사회의료보험 제도를 통한 전국 에이즈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도록

**AIDS에 대한  
영국의 시각은  
중대한  
사회문제임과 동시에  
국민의 생활을  
뒤흔드는  
정치문제가 된다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정부 주도의  
예방정책을  
본격 전개하기  
시작했다.**

했고, 세번째는 미국의 참상을 자세히 연구하며 교훈으로 삼아 예방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 행동을 촉구한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은 에이즈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이다. 미국의 경우 시간이 많이 지나도 「개인의 병이므로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 하는 사회통념에 지배되었던데 비해, 영국의 시각은 중대한 사회문제임과 동시에 국민들의 생활을 뒤흔드는 정치문제가 된다는 인식으로 정치의 이슈가 되었고 정부 주도의 예방정책으로 본격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것이 1986년의 대전환이라 일컬어지는 현상이다. 그것은 정치나 사업, 예술까지도 사람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활용되어져야 한다고 확신했다. 그리하여 TV보도 등을 통하여 일반사회속에도 이성간 성관계에 의한 감염우려가 널리 알려지자, 전통적인 건전한 가정생활과 가치관을 위협한다고 인식하게 되어 새로이 대책장구를 요구하게 되었다.

또한 당시 파우러 후생대신이 미국의 에이즈 참상지역인 샌프란시스코를 직접 시찰하며 에이즈 문제의식을 강화하고 처참한 실상을 보고 온 것도 큰 영향이 있었다. 정책전환의 결정적 요인이 된 것은 에이즈 비용이 방대하게 늘 것이라는 몇 건의 예측발표가 있어서 국민과 특히 기업에 충격을 주었다는 것이다.

당시 발병자 500건의 자료만 하더라도 경제적 파급효과와 의료비 부담을 합하면 2억4,000만달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큰 충격을 주자, 이에 의해 정책 결정에 큰 힘을 가진 재무당국이 내각과 후생성에 유효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게 되었다. 그동안 과감한 시책을 억제해왔던 권력장치가 오히려 에이즈 대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독려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긴축재정 속에서도 1986년도에는 전년도에 10배에 달하는 5,000만달러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후생성 밑에서 담당하던 에이즈 대책을 정부직할로 설치된 특별위원회에서 일괄 담당하여 정책을 입안 실행해 나가도록 했으며, 그 역점사업은 HIV 감염의 억제, 질병 연구추진, 감염자 인권, 편견불식을 위한 지식보급 등에 역점을 두었다.

영국의 에이즈 대책에 있어서 가장 효과를 올린 것은 예방홍보 작전이었다. 그 방법의 독특함과 자금을 충분히 투입한 철저함이

미국과 같은 감염폭발을 회피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이었다.

무려 1,700만불을 투입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했는데 좋은 표어를 여러 가지 활용했다. 대표적으로 “교육만이 유일한 백신이다.” “성 상대자는 한사



람으로, 그렇지 않을 때는 콘돔을 써서.” 등 안전한 성 행위를 호소하고 또한 후생대신이 서명한 편지를 전국민에게 발송했다.

그외에 연구치료 제도도 대폭개선 하였고, 혈액검사도 철저한 비밀보장과 함께 통계정리 위주로 했으며, 마약상용자에게 주사침 교환제도도 점진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일본은 감염폭발 억제에 성공한 영국의 수법을 모방하여 1993년도에 거창한 「에이즈 방지작전」을 수립, 국민예방 홍보캠페인, 검사, 의료, 상담체제 강화, 연구와 국제협력, 지방자치체에 대한 대책 등 4대 중점사항에 주력하고 있다.

1993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의 5배를 증액 강화했으며, 특히 예방홍보 교육부문은 전년도의 30배 가량 증액하는 등 대대적인 전환과 함께 강력한 국가 에이즈 방지 의지를 행정으로 나타냈고, 94년도에는 제10회 「국제 에이즈회의」까지 유치해서 예방홍보에 적극 활용하는 탓에 무관한 성풍속과 활발한 해외 교류에 비하면 폭발적 감염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 4. 한국의 효과적 대응

이상의 에이즈 선진국의 경우를 살펴보다라도 초기 판단착오와 무대책, 그리고 무관심, 자금부족 그리고 특수한 소수 집단의 문제나 개인의 병으로 치부하면 에이즈가 만연되어 일반화될 때 견줄 수 없는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반면에 예방 홍보교육에 치중하여 사전 원인행위 차단에 주력하고 개인의 병보다는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사회 문제

일본은  
감염폭발 억제에  
성공한  
영국의 수법을  
모방해  
1993년도에,  
거창한  
「에이즈 방지작전」  
수립 · 전개했다.

요, 정치문제로 접근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며 오히려 초기에 억제할 수 있다.


에이즈는 현재 치료가 안되기 때문에 예방만이 최선의 길이다. 그렇다면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세계 감염자의 75% 정도가 성관계로 감염되고 있다. 따라서 주 감염경로인 감염자와의 성관계를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콘돔을 권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국민정서상 콘돔을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그러면서 성관련 산업은 많이 번창해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에이즈에 취약한 이유이다. 또한 콘돔의 효율성을 생각해 보아야겠다.

콘돔은 100번 중의 14회~30회의 실패율이 있다. 피임의 경우 실패하면 생명을 잃게 된다. 10번 중의 1꼴의 사망사고인데 왜 거부하지 못하고 죽음을 자초하는가?

무증상기가 10년 또는 그 이상이기 때문에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감염위험이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안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미국에서 1960년대부터 불어닥친 성혁명의 결과, 문란한 성풍속이 만연하여性病증가, 10대 임신, 미혼모 범람, 범죄와 마약증가, 에이즈 확산 등을 자초하게 되니까 이제에는 에이즈의 두려움과 도덕적 보수화 경향 등을 바탕으로 「순결지킴기 운동」 같은 신선한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혼전 순결서약을 한 청소년들이 지금은 50만명이 넘었다고 한다.

오늘의 시대적 상황과 한국민의 성문화 정서를 살펴볼 때 에이즈의 초기단계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주감염경로인 성생활을 올바르게 계도하여 성윤리를 확립하고 사랑의 질서를 바로잡는 도덕성 정립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부분적으로 콘돔 등의 사용을 홍보하는 캠페인도 필요하겠지만, 보다 강력하게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아예 사전 감염 가능성 있는 원인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그리하여 건강한 가정, 밝은 사회를 이룩하는데 기여한다면, 대부분의 사회 양심과 여론이 관심을 갖게 되고 에이즈 예방운동에 동참함으로써 예방효과가 빨리 나타날 것이다.

세계 가정의 해를 맞아 더욱 가정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면 에이즈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다. 

**AIDS 예방을 위해  
콘돔을  
권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로나  
콘돔의 효율성을  
생각할 때,  
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과의  
성관계를 안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